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8호 [루게 제 26092호] 주제 107 (2018)년 8월 6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최봉태동지, 황병서동지, 조용원동지, 오일성동지, 김용수동지, 김창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인민무력성 제1부상 육군대장 서홍찬동지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이라고 대단히 만족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메기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넉넉히 먹이시려고 메기양어의 새 력사를 펼치던 초기기에 건설하여주신 우리 나라 메기양어의 맡아볼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명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하여 당에서 품을 들여 개건현대화한 공장인것만큼 능력대로 해마다 3,000t의 메기를 어김없이 생산함으로써 인민군인들과 인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7년 2월 20일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메기양어의 주제화, 과학화, 질약화, 농업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해마다 3,000t의 메기를 생산할데 대하여 주신 전투적 파업을 빛나게 관철한 삼천메기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크나큰 긍지와 사랑을 안고 최고령도자동지를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력소개실,

과학기술보급실, 종합조종실, 야외 못, 종자메기호통, 후보종자메기육성호통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질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메기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질감을 받았던 건물바깥벽에 타일을 산뜻하고 정갈하게 입히니 공장이 한결 더 환해지고 좋아졌다고 하시

면서 불수록 희한한 공장이라고, 생산환경의 전지에서 보나 건축

미학적인 전지에서 보나 흠잡을데 없는 최고로 완벽한 공장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메기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정책결사관철정신과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공장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일신시키고 당에서 정해진 3,000t의 연간메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년평균 300t정도의 메기를 생산하던 공장을 개건확장하여 지난해에 3,000t을 생산하였는데 공장이 10여년동안 생산하던 량을 한해동안에 생산한셈이라고, 인민군인들에게 이전보다 10배에 달하는 물고기를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고 붓내 기뻐하시면서 공장을 개건한 보람이 있다고, 현대화의 성과를 은을 내는 실리가 큰 공장

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실지 턱을 보는 공장으로 명예를 떨쳐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메기공장이 우리 나라 양어부문을 선도해나가는 기관자, 첨단양어기술보급의 선구자, 교육자, 원종장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메기 생산주기를 단축하고 사료단위를 세계적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는데 대한 문제, 성장속도와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료첨가제개발사업을 전국의 메기 공장들에서 경쟁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 메기생육단계별 사료처방을 과학적으로 하여 고기맛을 좋게 할데 대한

문제, 우량종종의 메기종자들을 육종하며 원종보존체제를 세워 종자메기의 퇴화를 막을데 대한 문제, 물 립방담 메기 생산량을 계속 늘일데 대한 문제, 메기 못의 수질관리를 잘하며 갈수기에도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문제, 생태환경조건을 잘 보장 해주어 알깨우기실수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폐사율을 극력 줄일데 대한 문제, 호동별, 못별, 기대별 사회주의경쟁과 국가컴퓨터망의 양어부문 자르기지를

통한 따라배우기, 따라알사기, 경험교한 운동을 활발히 벌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 하여 공장의 관리운영과 양어부문 사업 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행동 지침을 제시하시였다. 메기공장을 내각이나 성, 중앙기관이 아니라 당의 명령지시라면 물뿔을 가리지 않고 오직 결사관철로만 대담하는것을 제 정말 보배공장이라고 거듭 칭찬하시면서 은 공장이 당의 양어정책을 옹호편향하기 위한 하나의 지향으로 심장을 끓이며 생 산적양양을 일으켜 공화국장전 70돐을

자랑한 로력적성파로 맞이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삼천메기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농업원들은 삼복월의 승가쁜 휴업속에서도 변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뜨거운 격정 속에 우러르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값높은 평가와 믿음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현지지도과업을 빛나게 완철하여 당중앙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 사 설

# 당의 부름따라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하자

우리 인민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 전입한 때로부터 2년 남짓한 기간이 흘러갔다. 오늘 우리 당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에 기초하여 경제건설대진군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기 위한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고나가는 항전투쟁구호이다.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우리가 정한 기한내에 거머쥐어 점령하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틀어쥐고 무조건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인민경제건설을 완성시키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용대한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전략이다.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성향상의 동원이 세차게 불어치고 전야마다 흥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당의 구상과 결심은 전이되고 승리와 영광이 당중앙과 혼연 일체로 이룬 우리 인민에게는 뽕지 못할 난관, 정병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평도림에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 강위력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회의 포성이 높이 울려지고 경공업과 농업은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평명거리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서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룩된 성과는 자랑할만 하지만 우리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완수하자

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높은 목표, 방대한 일감은 더 큰 분담과 박차를 요구하고있다. 지금은 하루하루를 계획수행으로 만족하고 가지적인 성과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 현수적인 공격, 최대한의 증산, 이것이 혁명의 요구이고 시대의 부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삼복월강행군으로 평안북도와 황강도, 함경북도와 강원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승진포상을 높이 올려주시는 등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개선하여 새 세기 혁명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할데 대한 중요성과 임무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는 우리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자력자강의 신념을 뽐내주고 온 나라에 대비적 혁신, 기적창조의 새로운 불씨를 지펴온 혁사적인 장기로 된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발기, 이것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서 최기적전진의 피정로로 될것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은 당중앙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총성의 운동이다. 우리 당은 결심하여 못내린 일이 없는 위대한 당이다. 가장 훌륭한 로선과 전략 전술로 승리의 앞길을 밝히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혁명적 전진을 끊임없이 앞당겨서 이룩어나가는 항도력파장이 바로 우리 당이다. 오늘 우리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경제건설의 어느 한 고지를 점령하는가 하는 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험으로 파시하는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사상으로 승화되고 당의 권위를 생명처럼 여기며 당의 평도림과 비례를 개척해나가는 영웅적인 인민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당의 구상과 결심은 드린 없는 신조로, 지상의 명령으로 되고있다. 고임-담론철결전선자들이 시련과 난관을 막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해상 철길을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위훈을 창조한 밀야당에는 당정책집행관들의 정신이 태착되고있다. 우리 당이 태심은튼하여

주체혁명의 전진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이 큰 작전을 벌이던 때를 떠올리고 바다도 배우는 우리 인민의 애국충정을 굳게 믿어야 한다.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신념을 간직한 우리 인민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누구나 존엄높은 우리 당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줄기차고 명렬한 돌격전으로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나갈 때 우리의 전진은 더욱 가속화될것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은 자립경제의 토대를 흔들다져 경제강국건설의 용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자력자강의 대진군 운동이다.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 기간에 나라의 경제전진을 상승계로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한다. 이 무쟁목표가 실현되면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부흥하는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갖추게 되며 세계를 향하여 더 무섭게 비약해 나갈수 있게 된다. 하루빨리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일떠세우고 우리 인민이 그 덕을 실질적으로 보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 혁명의 전진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기대이다. 전인민적인 총 돌격전으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해온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무쟁목표이다. 우리 인민은 속도전의 전군나팔소리 높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을 당장인 30돐으로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1980년대에 200일전투의 자랑찬 승리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양기를 펼쳐놓았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에 전개된 총성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는 한마음한뜻으로 당의 위업을 총지하게 만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오직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남들이 걷는 열거움, 백길음을 한달음에 뛰어넘으며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영웅적투쟁기풍은 오늘날도 곳곳이 이어지고있다. 지금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은 더욱 약박해지고있다.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증산돌격전을 명렬히 벌려 원수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안기고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혁명가들의 실천력을 다시한번 증명할것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은 추후도 드립수 없는 우리의 혁명임무이고 조국의 장래발전을 위한 중대사이다. 지금이야말로 공화국의 변명, 민족민단의 행복을 위한 력사의 분기점이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가 먼 후날의 일로 되는가, 가까운 앞날의 현실로 펼쳐지는가 하는것이 오늘날의 투쟁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은 당의 부름따라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거머쥐어 점령함으로써 광명인 미래에 보답할것을 내세우는 주체조선의 기상과 본태를 힘있게 펼쳐야 한다. 필승의 심심과 비상한 열정은 증산돌격운동의 승리를 위한 원동력이다. 오늘날의 증산돌격운동의 승리의 담보는 결코 자급이나 자제에 있는것이 아니라 신심과 참도리에 있다. 증산의 예비도 우리의 심장속에 있고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쇠도 우리의 손에 쥐여져있다. 증산돌격운동은 사상정신에서의 혁명적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지켜서 초소가 증산돌격운동의 완성이 판가름되는 최전방이라는 자각을 안고 당이 정한 돌격전투를 따라 질풍노도쳐나아가야 한다. 당이 제시한 무쟁목표를 거머쥐어 점령하겠다는 높은 책임감, 막이서는 강태를 과감히 극복하고 불적료를 얻어나가는 완강한 계획정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투쟁기풍이 초소와 일터마다에 꼭 자라내야 한다. 말려진 전투원수를 수행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누구나 증산돌격운동에 제 몸을 거는 안일해이와 나약성, 폐쇄주의적관점을 불사르고 높은 혁명성과 투신력,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해나가야 한다. 지력자강과 과학기술은 오늘날의 증산돌격전의 위력한 보검이다. 오늘날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거기에 활기는 과학기술이다. 자력자강정신에 과학기술을 더하면 하늘도 이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자강,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며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 동원하여 당이 제시한 전무목표를 거머쥐어 점령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성향상과 황성회의 지름길을 열고 부흥되는 자제와 실비, 로력문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최신과학기술성공과들을 적극 도입하여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시대를 대표하고 나라의 대의적권위를 높일수 있게,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증산돌격운동이 자제와 과학기술개발과 자력자강정신을 흔들지 우리 자력으로 발전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없이 좋은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최대의 실적을 내게 하며 과학기술보급 운동의 승리를 위한 원동력이다. 오늘날의 증산돌격운동의 승리의 담보는 결코 자급이나 자제에 있는것이 아니라 신심과 참도리에 있다. 증산의 예비도 우리의 심장속에 있고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쇠도 우리의 손에 쥐여져있다. 증산돌격운동은 사상정신에서의 혁명적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지켜서 초소가 증산돌격운동의 완성이 판가름되는 최전방이라는 자각을 안고 당이 정한 돌격전투를 따라 질풍노도쳐나아가야 한다. 당이 제시한 무쟁목표를 거머쥐어 점령하겠다는 높은 책임감, 막이서는 강태를 과감히 극복하고 불적료를 얻어나가는 완강한 계획정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투쟁기풍이 초소와 일터마다에 꼭 자라내야 한다. 말려진 전투원수를 수행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누구나 증산돌격운동에 제 몸을 거는 안일해이와 나약성, 폐쇄주의적관점을 불사르고 높은 혁명성과 투신력,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해나가야 한다. 지력자강과 과학기술은 오늘날의 증산돌격전의 위력한 보검이다. 오늘날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거기에 활기는 과학기술이다. 자력자강정신에 과학기술을 더하면 하늘도 이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자강,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먼저 나와야 하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삼심하고 실효성이 큰 정치사업방법도 일꾼들이 창조하여야 한다. 불이 나면 따라가면서 쓰는 소량대시일본체와 단호히 결별하고 모든 사업을 예견성있게 설계하고 치밀하게 조직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생산단위의 일꾼들은 책임감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책임있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각과 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은 나라의 경제사업의 담당자,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5개년전략목표수행과정에 맞춘 경험과 교훈,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더 큰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짜고쳐야 한다. 이데올로기 사업을 수시로 요해하고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책임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사상선의 집중포화, 현수포화, 명중포화를 들이침으로써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거세게 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경쟁단위들사이에서 증산돌격운동을 호소하는 편지와 회답편지들도 주고받으며 이룩된 성과와 경험도 교환, 공유하면서 오늘날의 증산돌격운동이 현실의 대중적혁신운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조급당위원회와 당세포를 비롯한 기술공조자들이 증산돌격운동에서 당의 사상관철을 지닌 훌륭한 인민이 있으며 최약의 역경속에서 우리 공화국을 전진국가의 지위에 올려세운 무진강한 발전잠재력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명백하며 필승의 심심은 태백하다. 모두가 증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거머쥐어 점령하자.







